

마포구 소각장 설치 반대 민원 빗발... 서울시 '진퇴양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조성 설치 백지화 민원글 공감수 높아 "주민 무시하는 엉터리 정책" 반발

서울시가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현대화해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마포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6일 서울시의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따르면, 마포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짓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민원 글이 지난 1일부터 이날 오후 2시30분까지 총 12건 접수됐다.

가장 많은 공감수를 기록한 청원은 '마포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상암동에 사는 인모 씨는 "자원회수시설이 반드시 서울에 필요하다면 25개 자치구에 하나씩 소형 소각장을 건립해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제일 정상적인 발상"이라며 "그럼에도 하나의 거대한 소각장을 한 지역으로 밀어 넣는다면 서울의 균형발전이라는 게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서울시장이 몸소 보여주는 게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그의 의견에 2172명이 공감버튼을 눌렀다.



수변 광역자원회수시설 개념도 예시. /서울시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현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리모델링해 땅 아래 묻고 지상에는 1000억원 규모의 주민편의

시설을 건립,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시는 연간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마포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2026년까지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짓고, 종전 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인 씨는 "겉보기에 교묘하게 기존의 소각장을 지하로 넣는다고 하는데 1분만 생각하면 현재 750t에 더해 2026년에 새로 들어오는 1000t(신규 자원회수 시설 일일 소각량)까지 무려 1750t을 2035년까지 쪼아지고 살아야 한다"며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기존 시설을 먼저 폐기하고 그 다음에 최첨단인지 현대화인지 지하화인지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오모 씨는 "기존에 750t 처리 능력이 있는 소각장이 이미 있는데도 또다시 상암동에 하루 1000t을 처리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엉터리 정책"이라며 "그렇게 좋은 시설이라면 왜 각 구마다 반대를 하겠느냐. 형평성에 맞게 (자원회수시설이) 없는 구에 조성하는 게 백번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간의 민원에 290명이 지지를 표했다.

마포구에 33년째 거주 중인 엄모 씨는 "초등학교 때 평화의공원·하늘공원 설립 전 쓰레기 매립장 체험을 한 세대

다. 그 악취는 아직도 잊기 힘든 기억"이라고 호소했다.

엄 씨는 "이미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구에서 왜 또 희생을 해야 하나"며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약 37만명의 마포구민을 생각하면 가족 강을 해치더라도 1인당 약 27만원을 지원한다는 거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연간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지 생각해봤느냐"고 따져물었다.

엄 씨는 모든 남미 현상을 한 곳에서 해결하지 말고, 각 구에서 나온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 시민들로부터 세번째로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마포구는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약 9년간 구에서 2개의 소각장이 가동되는 셈이라며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반대 대응TF' 내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시는 이달 중 주민 공고·공람과 공청회를 거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후 시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경기도, 680억 디지털·소부장 펀드 조성

'경기도형 모펀드' 첫 출자 도내 관련 분야 기업 투자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형 모펀드' 첫 출자사업으로 총 680억 규모의 디지털 전환 펀드와 소부장 펀드 결성을 완료하고, 도내 관련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 추진한다.

올해 출범한 경기도형 모펀드는 회계 연도에 맞춰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정책펀드와 달리, 기존 정책펀드의 정산 회수금을 투자기금으로 적립해 안정적으로 출자와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분야의 자(子)펀드를 조성하

는데 모펀드의 기금을 활용,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투자수요에 능동·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4월 출범 후 첫 출자사업으로 '디지털전환'과 '소부장' 분야를 결정한 이후, 그간 5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펀드 조성을 추진해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 전환 펀드'는 모펀드에서 2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등 350억 원을 유치해 처음 결성목표인 200억 원을 훌쩍 넘은 370억 원 규모로 결성됐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솔루션 등 디지털 전환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9월부터 투자

대상 발굴에 나서며, 현대투자파트너스(주)에서 운용을 맡는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소부장' 펀드는 모펀드에서 3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등 280억 원을 유치해 총 310억 원 규모로 결성됐다.

플래티넘기술투자(주)에서 운용을 맡아 9월부터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대상 발굴에 들어간다. 특히 도는 지난 7월 조성한 1,030억 원 규모 탄소중립펀드를 포함해 이번 디지털전환 펀드, 소부장 펀드까지 올 한해 총 3개 펀드 1,710억 원의 결성을 완료하게 됐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 추석명절 취약계층 종합대책 추진

위문품비 지원, 안부 전화 등 실시

서울시는 이달 7~13일 민족 대명절 한가위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추석 명절 취약계층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시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약 21만8000가구에 추석 명절 위문품비를 지원한다. 작년보다 약 1만7000가구가 늘어난 규모로, 이달 1일부터 가구당 3만원씩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거동 불편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3만5728명에게는 추석 연휴 전·후로 전화로 안부를

묻고 비상 시 가정에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시설 거주자나 거리노숙인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시는 1일 3식을 제공한다. 31곳의 생활 시설과 7곳의 이용 시설에서 연휴에도 공백 없이 하루 세끼를 모두 지원하며, 거리노숙인 보호 시설인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창신동·동자동·남대문·영등포·돈의동 쪽방상담소에서는 쪽방 주민 2460명에게 명절특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139개소의 종합복지관에서 300개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뷰티트래블워크' 이달 30일 개막

종로 일대 30여개 매장·업체 체험

서울시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종로 일대에서 '서울뷰티트래블워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서울뷰티트래블워크는 대청마루에 앉아 소나무 정원을 보며 힐링할 수 있는 한옥스테이, 한방차·전통 다과와 함께 한방재료를 넣은 물에 족욕을 하며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수 있는 카페, 인문학 강의와 함께하는 인왕산 트래킹 등 서울시가 큐레이션한 종로 일대 30여개 매장·업체를 체험해보는 참여형 축제다.

시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시 홍보대사인 양태오 디자이너를 총괄 디렉터로 선임하고, 축제를 기획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양태오 총괄 디렉터는 '서울이 제안하는 아름다움의 진정한 이야기를 찾는 여정'이라는 주제 아래 ▲쉽 ▲맛 ▲멋 3가지 콘셉트의 체험을 큐레이션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양태오 총괄 디렉터는 '서울이 제안하는 아름다움의 진정한 이야기를 찾는 여정'이라는 주제 아래 ▲쉽 ▲맛 ▲멋 3가지 콘셉트의 체험을 큐레이션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두 달만에 2만4100명 신청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시행 두 달만에 2만4100명이 신청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시가 올해 7월부터 선보인 사업이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9월 7일 (수)

음력 : 8월 12일

수도권 날씨

17~2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07 | 해질 / 18:53

연천 14/27, 동두천 14/27, 가평 13/26, 파주 13/27, 서울 17/27, 양평 15/27, 수원 17/26, 용인 17/26, 평택 15/27, 백령도 19/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중국 쓰촨 6.8지진 사망자 65명으로 늘어...사상자 계속 증가
- ▲“美 경기침체시 아시아에서 싱가포르·태국 가장 취약” /사진 뉴시스

- ▲美대형 물류업체 UPS, 노조와 충돌 임박...공급망 긴장
- ▲“갈뿔살 구워먹는 게 정력의 상징?” ...프랑스 정계 육류 소비 논란



- ▲“우크라이나 남부 반격 작전 후 러 혼란 빠진 징후”
- ▲심각하게 분열된 미국이지만 내전 위기는 넘겼다 /사진 뉴시스